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신년사

- 계엄군의 선관위 청사 점거는 민주주의 위협, 진실규명과 법적 조치 필요
- 민주주의는 상대방에 대한 관용과 이해, 권리의 행사에 신중함을 잃지 않는 것
- 불확실한 정치 상황이지만, 헌법기관으로서 주어진 임무 충실히 수행할 것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5년 을사(乙巳)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늘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며칠 전 여객기 사고로 수많은 생명이 숨진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깊은 애도의 마음으로 돌아가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관리하려 노력하였고,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67%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선거 참여야말로 우리나라의 주인이 바로 국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의미 있는 일입니다. 소중한 주권행사를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12월 비상제엄이 갑자기 선포된 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엄군으로부터 위원회 청사가 점거당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 이유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선거에는 공정성과 보안성을 담보하는 여러 제도적 장치가 있으며, 그 과정은 선거관여자뿐만 아니라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으므로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조직적인 부정이 개입될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소송도 사법기관에서 근거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설치된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를 점거한 사건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것으로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관계 당국에서는 조속히 진실을 밝히고 반드시 그에 따라 분명하고도 확실한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불확실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진영 간의 갈등과 대립도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생각을 달리하는 상대방에 대한 관용과 이해 그리고 권리의 행사에 신중함을 잃지 않는 자제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여러 정치적·경제적 위기를 겪었고 그때마다 우리 국민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슬기롭고 의연하게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현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의 정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치 환경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더라도 헌법기관으로서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는 어느 시점에 고정된 형태로 완성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시대상황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진행형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는 우리 민주주의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올 한해도 변함없이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본연의 헌법적 책무를 다할 것이며,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선거의 참된 가치를 실현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여와 화합으로 대한민국의 희망을 담아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5 1.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 태 악